

#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

(안극수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5596 |
|----------|------|

발의연월일: 2024년 8월 일

발 의 자: 안극수, 안광림, 추선미, 구재평,  
박명순, 정용한, 이영경, 민영미,  
김보미, 박주윤, 김종환, 박종각,  
박은미, 서희경, 황금석, 김장권,  
김보석 의원 (이상 17명)

## 1. 제안이유

-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가는데 있음.
-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신속히 승인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은 성남시민의 의지가 최우선 반영되어야 함.

## 2.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 촉구.
-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이래 코로나19의 영향만이 아닌 직영체제의 한계로 의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에 따른 진료 공백과 시민 외면, 막대한 의료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따른 진료비 상승, 공공의료 축소 등 우려는 성남 시의회가 앞장서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하고 감시할 예정임.

3.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4. 기타사항

○ 이송기관 : 보건복지부, 성남시

○ 붙임 :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 1부.

#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가는데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게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승인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성남시 집행부는 2023년 11월 28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에서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92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임을 성남시의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건립비용 1,691억원과 누적 출연금 2,412억원을 합해 4,103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은 성남시민의 의지가 최우선 반영되어야 한다.

시 집행부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대학병원 위탁 운영에 찬성하는 의견이 61.9%와 76.6%로 각각 나타났고, 조건부 찬성을 포함하면 93.8%로 압도적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성남시민의 의견은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승인해야 할 이유이다.

시민의 의지와 눈높이에 맞는 보건복지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주지하다시피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이래 코로나19의 영향만이 아닌 직영체계의 한계로 의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에 따른 진료 공백과 시민 외면, 막대한 의료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성남시의료원은 회생불능의 상태로 최악의 공공병원으로 회자되는 오명을 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남시민의 뜻을 보건복지부는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따른 진료비 상승, 공공의료 축소 등 우려되는 사항은 시 집행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성남시의회가 앞장서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하고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환자보다 직원이 많은 병원이다. 지난 20여 년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을 두고 제기되었던 수많은 우려는 현실이 되어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성남시의회는 더 이상의 논란을 종결하고 성남시의료원이 진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하도록 보건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신속히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승인하라.

하나, 시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승인 후 유수의 대학병원이 성남시의료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라.

2024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